

콜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1,039천 km ²	G D P	3,284억 달러 (2011년)
인구	46.05 백만 명 (2011년)	1 인 당 GDP	7,132 달러 (2011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848.14 (2011년)

- 콜롬비아는 남미지역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임.
- 반세기 동안 이어진 반군세력 활동과 마약, 납치, 살인 등 강력범죄가 만연하여 심각한 정국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나, 2002년 우리베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게릴라 소탕 작전으로 투자여건이 호전되고 치안 상황도 크게 개선되었음.
-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어 국제시장으로부터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제성장률	3.6	1.7	4.0	5.9	5.1
재정수지 / GDP	0.5	-2.2	-2.7	-2.1	-1.7
소비자물가상승률	7.0	4.2	2.3	3.4	3.5

자료: IMF, EIU.

□ 2012년 5% 수준의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2002년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강력한 마약퇴치 및 게릴라 소탕 작전을 통해 치안이 크게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회복되고 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및 커피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 4~7%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음.
- 그러나 2008~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수출품인 석유 및 커피가격 하락,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외국인직접 투자 증가, 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1년에도 실업률 하락에 따른 내수 증대와 에너지 및 광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로 경제성장률 5.9%를 시현함.
- 2012년에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있으나 내수 및 투자의 지속적 증가로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안정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에 힘입어 3~5%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에는 금리인상 및 폐소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까지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내수 침체, 식료품 및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를 기록함.
- 2010년에는 식료품가격 하락 지속 및 폐소화 강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홍수 피해로 인한 농작물가격 상승으로 3.4%를 기록함.

□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

- 2008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0.5%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연금 및 외채이자 지급, 지방정부 지원, 과도한 국방비 지출 등으로 재정수지는 적자 기조를 형성함.
- 2009년에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실시로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2.2%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유류세 징수액 축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정부지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적자폭은 GDP의 -2.7%로 확대됨.
- 2011년에는 홍수로 인한 피해복구로 인해 정부지출이 증가하였으나, 경기 회복 및 유가상승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로 적자폭은 GDP 대비 -2.1%로 전년보다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높은 대미 의존도 및 외부변동에 취약한 수출구조

- 산업별 GDP(생산기준) 구성(2011)은 서비스업 53.1%, 제조업 38.0%, 농업 8.9%로, 역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경제구조가 고도화되어 있음.

- 교역상대국 비중 면에서는 2011년 콜롬비아의 대미 수출비중은 38%, 수입 비중은 25%를 차지하는 등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수출의 절반 이상이 원유, 석탄, 커피 등 1차산품에 치중되어 있어 기후변화 및 국제가격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에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및 석탄 매장량 풍부

- 원유 확인매장량은 19억 배럴로 중남미 6위 산유국이나, 투자재원 부족 및 반군활동으로 인한 통제권 상실로 전 국토의 20%만을 탐사한 상태여서 향후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우리베 정부에 이어 신임 산토스 정부도 외자유치를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유전개발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콜롬비아는 석탄 매장량 중남미 1위국으로 석탄 수출비중은 원유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석탄의 질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친시장적 경제정책 및 강력한 치안정책으로 국제신인도 개선

- 우리베 정권 이후 건전한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FTA, 투자보장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장치마련을 통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신임 산토스 정부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그 결과로 2011년 3대 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S&P('11.5월): BB+ → BBB-)을 부여받음.

□ 재정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정책 추진

- 신임 산토스 정부는 매년 기초재정수지 1% 흑자 유지를 골자로 하는 재정 준칙을 수립하였으며, 세원확보를 위해 석유 및 광산회사들에 대한 로열티 증액, 각종 면세제도 축소, 사치품(술, 담배, 도박)에 대한 증세, 재산세 확대 등 조세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이밖에 의료시스템 개혁, 토지소유권 및 토지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지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IMF와 60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FCL) 계약 체결

- 콜롬비아는 2009년 5월 IMF와 1년 만기 105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5월에 34억 달러, 2011년 5월에도 2년 만기의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 IMF의 FCL 지원 승인사례('12.7월 기준): 폴란드, 멕시코, 콜롬비아(3개국)

- 이는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기 외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시장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콜롬비아가 동 자금을 인출한 사례는 없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f
경 상 수 지	-6,699	-4,960	-8,760	-9,980	-10,081
경 상 수 지 / G D P	-2.8	-2.1	-3.0	-3.0	-2.2
상 품 수 지	971	2,545	2,240	5,514	5,703
수 출	38,534	34,025	40,867	57,739	62,951
수 입	37,563	31,479	38,628	52,225	57,248
외 환 보 유 액	22,810	23,158	26,349	28,976	36,131
총 외 채 잔 액	46,392	54,535	59,774	62,997	65,702
총 외 채 잔 액 / G D P	19.1	23.4	22.7	23.2	21.4
D S R	16.5	20.8	19.8	18.0	17.9

자료: IMF, OECD, EIU.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00년 이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1%대를 유지하였으나, 산업활동 증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 증가,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2.8%, 2009년 -2.1%, 2010년 -3.0%를 기록함.
- 2011년에는 원유, 석탄, 커피 등 주요 수출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했으나 수입 및 외국기업들의 과실송금 증가로 소득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3.0% 수준을 형성함.

□ 2011년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전년 대비 하락

- 외환보유액은 2009년 232억 달러, 2010년 263억 달러, 2011년 말 290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2010년 5.3개월에서 2011년 4.4개월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2012년 5월 미국과의 FTA 발효로 FDI 유입액 확대 전망

- 콜롬비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치안 개선 노력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음.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2년 연중 21억 달러에 불과하던 FDI 유입액이 2008년 106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FDI 유입액이 72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2010년에는 석유매장 후보지역에 대한 탐사가 지연되면서 FDI 유입액도 68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미국과의 FTA 관련 미국 의회 비준 완료 등으로 인해 FDI 유입액은 역대 최대인 13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외채관련 지표는 큰 변동없이 관리 가능한 수준

-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해외차입 증가로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은 20% 내외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수출 호조와 FDI 유입 지속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기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민주적인 정권교체 지속

- 콜롬비아는 보수당과 자유당 사이의 정치투쟁이 정점에 이른 대폭력시대 이후 국민전선체제를 통해 양당 간 교대집권 및 주요 공직 공동배분으로 정권안정을 이루었으며, 1974년 국민전선체제 종식 이후에도 선거를 통해 비교적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지속하였음.

□ 2010년 8월 산토스 정부 출범

- 2010년 8월 집권 여당의 전임 국방장관인 후안마누엘 산토스 후보가 69%의 높은 지지율로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산토스 정부는 전임 Uribe 정부의 강력한 치안정책과 친시장적인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천명함.
- 취임 이후 빈곤 감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및 의료개혁, 토지개혁 등 사회 안정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2010년 말 여론조사에서 90%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2012년 5월에는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강력한 치안정책으로 반군 무장세력 약화

- 콜롬비아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국가해방군(ELN), 우익민병대(AUC) 등 반군조직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불안한 치안상황이 지속되었으나, Uribe 정부 출범 이후 치안강화 및 꾸준한 협상 노력을 통해 2006년 우익민병대(AUC)가 공식적으로 무장해제를 선포함.
- 또한 콜롬비아 내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반군조직인 FARC에 대한 화전 양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반군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2011년 11월에는 FARC의 최고지도자인 알폰소 카노(Alfonso Cano)를 사살하는 등 반군조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함.

* FARC는 1964년 콜롬비아 공산당의 무장단체로 조직된 마시스트 이념투쟁 기구이며, 콜롬비아 우익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각종 테러, 무장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위협적인 단체임.

- 불안한 치안상황이 콜롬비아의 경제 및 사회안정에 가장 큰 불안요소였음을 감안할 때, 반군 조직의 세력 약화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정국불안 해소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빈곤 감축과 사회불평등 해소는 당면과제

- 콜롬비아는 국민의 30% 정도가 하루 2달러 미만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지니계수 역시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높은 0.58을 기록하는 등 사회불평등 문제가 심각하여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산토스 정부는 취임 직후 빈곤감축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3. 국제 관계

□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콜롬비아는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1999년부터 매년 6~7억 달러의 마약 및 게릴라 소탕자금을 지원받는 등 전통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2009년에는 마약 단속과 게릴라 조직의 근절을 명목으로 콜롬비아 7개 지역에 미 공군기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였음.
- 한편, 2006년 7월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10월 미 의회 비준이 완료되고 2012년 5월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어 양국의 경제관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권과의 관계 개선

- 2008년 3월 에콰도르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콜롬비아군과 FARC의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에콰도르 및 베네수엘라 정부가 FARC와 긴밀한 연계가 있었음을 명시하는 내부문서가 발견되어 외교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음.
- 산토스 정부 출범 이후 에콰도르의 무관세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던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베네수엘라와는 2011년 10월 3,000km 길이의 석유 파이프라인 설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좌파정권과의 관계가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관계 다변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산토스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제관계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1년 5월 주변국인 페루, 칠레와 통합증권시장(Integrated stock market) 조약을 체결하였고 페루, 칠레, 멕시코와 함께 경제통합체인 태평양연합체(Pacific Alliance)를 출범시켜 2012년 6월 정식 조약이 체결되었음.
- 이와 더불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FTA 등 각종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12년 6월 한국과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일본과도 FTA 협상을 준비 중이고 중국과는 투자 및 교역 증진을 위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며 관계 강화에 힘쓰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양호

- 콜롬비아는 1980년대 초 중남미 외채위기 시 공적채무에 대하여 리스케줄링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채상환 및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그 동안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양호한 투자등급을 부여받음.
- 외채관련 지표도 비교적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외채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외채상환태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 **주요협정:** 문화협정('67), 과학기술협정('81), 사증면제협정('81), 무역협정('85), 이중과세방지협정('09),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10)

□ **교역규모, 2011년 큰 폭 증가**

-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규모는 2008년 12.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에 9.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해 18.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19.9억 달러로 증가추세를 시현함.
- 우리나라의 대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5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합성수지 등이 수출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콜롬비아로부터 커피 등 기호식품, 합금철선철 및 고철, 원유 등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표 4> 한·콜롬비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콜롬비아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797	1,389	1,374	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수 입	125	432	347	기호식품, 합금철선철 및 고철, 원유
합 계	922	1,821	1,721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 콜롬비아 직접투자 증가 추세**

- 2012년 3월 말 대 콜롬비아 직접투자(누계 기준)는 총 36건, 153백만 달러로 최근 직접투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업종별로는 석탄 및 석유정제품 투자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6월 양국 간 FTA 협상 타결**

-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2년 6개월의 기간을 거쳐 2012년 6월 타결되었으며, 양측은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계획임.

- 한-콜롬비아 FTA는 2011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확대, 중남미 시장진출 교두보 확보, 자원협력 확대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관계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V. 종합의견

- 콜롬비아는 친시장적이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으로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안상황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으로 FDI 유입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치안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반군세력이 완전히 소탕되지 않아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빈곤문제 및 높은 빈부격차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2011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부여받는 등 콜롬비아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신임 산토스 정부가 재정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12년 5월)되어 교역규모와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 같은 좌파 정권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와는 2012년 6월 FTA 체결로 양국 간 교역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책임조사역 황상하 (☎02-3779-5711)

E-mail: hsangha@koreaexim.go.kr